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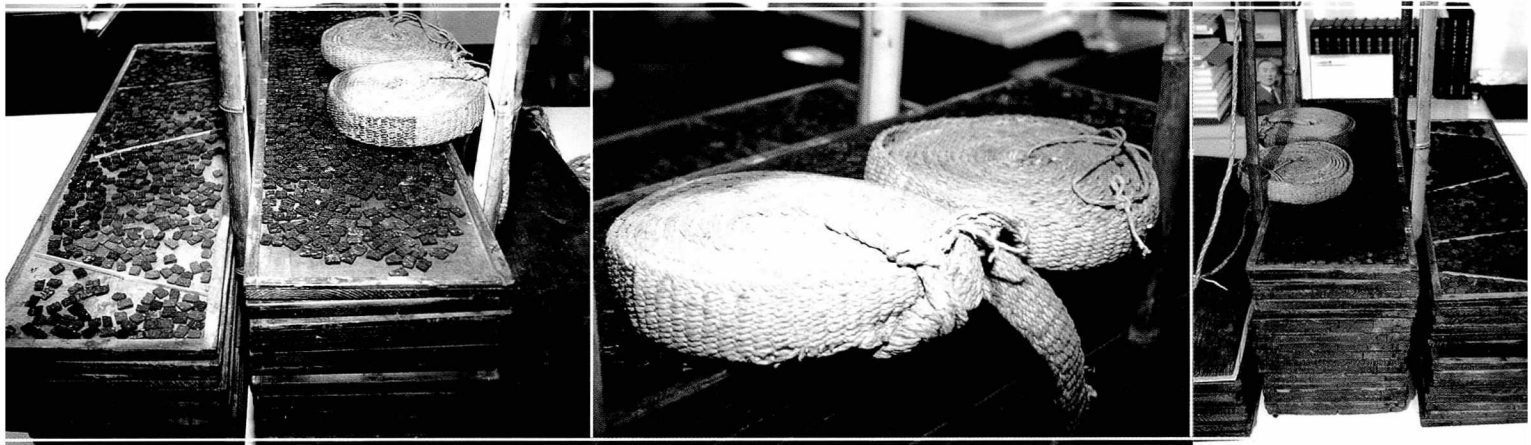
족보 인쇄 ... 1인 출판 출장 서비스로

우리나라는 인쇄출판업 분야에서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뛰어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한다. 세계 최고의 목활자 인쇄물인 무구정광대다라니경과 역시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 인쇄물인 직지심체요절의 발간은 이에 대한 대표적인 증거다.

그러나 위대한 역사를 갖고 있으면서도 세계적으로는 구텐베르크의 금속활자로부터 비롯된 서양에 비해 인쇄출판의 위상이 낮은 것도 사실이다. 서양에서는 인쇄출판이 대중성과 상업화를 앞세워 급격하게 기술적 진보와 산업적인 성공을 이룬 반면에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 인쇄출판 역사에 흥미로운 사건을 증언하는 유물이 공개돼 눈길을 끌고 있다. 상업성을 전제로 '1인 출판업자'가 보유했던 이동식 인쇄용구 세트가 공개된 것이다. 특히 이 유물은 종교적 색채를 띠거나 국가의 철저한 통제 하에 이뤄졌던 기존의 인쇄출판 용구와는 확연히 다른 목적으로 제작, 사용된 것으로 조선 후기 우리나라 민간 인쇄출판업의 단면을 추적하는 도구가 되고 있다.

7만3천 활자, 이동식 지지대 · 멜빵 원형 보존

조병순 성암고서박물관장이 최근 공개한 '1인 인쇄업자용 나무활자와 인쇄용구'는 7만3천여자에 이르는 목활자와, 목활자를 담은 목판, 인쇄판, 책 겹장에 장식용으로 마름꽃 무늬를 박기 위해 쓰는 능화판, 인쇄용 솔, 이동할 때 활자를 담은 목판을 고정하기 위해 사용했던 지지대와 밧줄 및 멜빵 등이다. 18세기말에서 19세기 초반 것으로 추정되는데, 나무 활자는 가로 1.3cm, 세로 1cm 안팎의 큰 활자 3만3천여자와 가로 세로 0.6cm 정도의 작은 활자 4만여자로 총 7만3천여자에 달한다. 큰 활자와 작은 활자는 각기 다른 41개의 목판에 분류됐는데, 각 목판에는 大, 竹, 田 식으로 부수별로 정리, 문선할 때 활자를 찾기 쉽도록 했다. 이 유물을 사용했던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학계 연구가 부족하고 의견도 분분하다. 다만 일부 학자들은 '1인 출판업자'를 '각수(刻手)'로, '나무 활자 등 인쇄용품 일체'는 지게로 옮겼다고 해서 '지게 활자'라고 부른다. 비슷한 형태가 국립중앙박물관에 보물 865호로 지정, '민간활자 및 인쇄용구'로 보존돼 있



- ① 활자가 41개의 목판에 부수별로 정리돼 있다. 한지로 만든 멜빵과 대나무 지지대를 이용해 이동하며 출판사업을 영위했다.
- ② 1인출판 용구앞에선 조병순 성암고서박물관장



기는 하지만 지금까지 원래의 형태로 전해 내려오는 것은 매우 드물다. 특히 이동식 지지대와 멜빵까지 완전한 형태로 보존된 것은 아주 이례적이다.

사회상 변화 따라 족보 인쇄 1인 출판업자 탄생

‘1인 출판업’은 조선 후기의 변화된 사회상 속에서 탄생한 문화산업이라는 것이 조 관장의 주장이다.

조 관장은 “18세기 후반, 경제력이 이전보다 나아지면서 족보와 개인 문집을 내려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그런데 필사로는 여러 권을 발간하기가 어려웠다. 그렇다고 활자를 직접 만들어 찍거나 목판으로 깎아내 출판하는 방식은 막대한 비용 때문에 어지간한 재력이 있는 집 아니고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 이때 생겨난 것이 1인 출판업자다. 18세기 말부터 등장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동식 ‘1인 출판

업자’는 자체 제작한 목활자 등 인쇄용구를 가지고 있다가 족보나 개인 문집의 제작 의뢰가 들어오면 의뢰자의 집을 방문해 인쇄해 주었다”고 주장했다.

18세기 중반부터 족보 인쇄가 유행했는데, 이를 뒷받침해준 강력한 지원군이 ‘1인 출판업자’라는 것이다. 현재로서는 연구가 미비해 이들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확인하는 것은 어렵지만 이동식 활자를 활용해 족보뿐만 아니라 개인문집과 같은 개인 출판물을 인쇄했을 것이라는 의견은 상당한 설득력이 있다.

우리나라에도 18세기 후반부터 민간 출판 활동이 성행했다는 데는 새로운 호기심도 유발된다. 다만, 아쉬운 점은 활자가 모두 한자라는 점이다. 민간 출판 시스템이 활발히 전개됐지만 서민층까지 대상이 확대, 대중성을 획득하기에는 구조적인 한계를 갖고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조갑준 차장 kjcho@print.or.kr

